

[종합·해설]

■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내용

둘째 자녀 낳으면 1년간 국민연금 면제

2010년까지 '방과 후 학교' 5,400개로 "예산 미약·평이한 정책 취합 수준" 비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0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까지 0~4살 아동의 교육·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만 5살 아동과 장애아동, 농어촌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및 교육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시안

Table with 2 columns: 항목 (Item) and 주요 대책 (Main Policy). Rows include: 자녀양육·사회육비 경감, 자녀양육 기정에 인센티브, 임야이용 영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고령사회 대비.

를 높출 수는 있지만, 고령사회 도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점에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있다.

활성화해 국민 개개인이 다양한 노후 소득보장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65살 이상 노인 과 64살 이하 치매·뇌혈관성 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복약과 간호,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2008년 도입하고, 이를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했다.

말기 질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며 공립 치매요양병원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정부 대책의 핵심 = 정부의 이번 시안은 외형상 매머드급이다. 전 정부 부처가 참여, 수개월간 공을 들였다. 그러나 회의론도 적지 않다. 특히 고령화 현상과 상관 관계를 갖는 저출산 기조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도 내놓고 '반전 카드' 부채를 토로한다.

실제 시안의 대부분이 각 부처에서 추진해 온 정책들을 취합한 수준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신규 예산 사업이 극히 미약해, 기성품을 잔뜩 모아 놓은 '백화점식 진열장'이 돼버렸다.

각 부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들을 개별적으로 일찌감치 발표해 버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길이 빠져 버렸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부동산정책 기조 변화없다"

당정 일단 '입맛추기'

선거참패 원인으로 논란 일어 개선요구 여전 '여진' 계속될 듯

5·31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제검도 여부를 둘러싸고 노정권 당정간 정책갈등이 7일 일단 '봉합' 국면을 맞은 듯하다. 당정은 그간의 논란을 잠재우려는 듯 이날 한목소리로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입을 맞췄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요 정책의 변화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5·31 지방선거 이후 당 차원이나 정책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없었다"면서 "선거과정에서 수용된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은 적어도 새 지도부 구성 이후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조세 정책의 개선 여부를 놓고 당정간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는데 따른 진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는 언

론에서 얘기된 것으로 당이 근본적인 제검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원내차원에서 얘기한 것은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 목소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조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그래서 시장이 여기까지 왔다"면서 "(여기서 조정한다면)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여당 내부에서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덕구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실물부 본 경제를 시급히 소통시켜야 한다"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중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을 중심으로 1~2년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거나, 과세 시가표준이 올라간 만큼 거래세를 낮춘다든지, 개발부담금을 예납제로 해 미실현된 소득이 나중에 실현될 때 부담금을 정산하도록 보완하고, 보유세의 분납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목표 50% 진척...쌀 2차 협상서 논의"

한-미 FTA 노동·경쟁 통합협정문 마련 개성공단 입장차·자동차·의약품 협상 시작

한국과 미국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이틀째인 6일 17개 분과 가운데 노동과 경쟁 2개 분과에서 1차 협상을 마치고 처음으로 통합협정문을 마련했다.

한국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미 상원 하트빌딩에서 열린 한미 FTA 협상 개시 리셉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협상 진척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것의) 50%는 적히 될 것"이라고 언급,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표는 또 "개성공단 문제는 경제통상의 문제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미북, 남북관계 등 여러 여건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 문제에 대해 김 대표는 "쌀은 2차 협상부터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고 언급, 한미 양국간의 입장차가 크음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김 대표는 7일부터는 핵심 쟁점인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 협상이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끝까지 조율이 안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협상해야 할 과제로 남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리셉션에 참석한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이제까지의 협상 상황에 대해 "좋은 출발을 했으며, (협상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하트빌딩에서 열린 한미 FTA 본협상 출범 기념 리셉션에 참석한 한국의 김종훈, 미국의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고 평가했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노동과 경쟁 2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 합의가 이뤄진 점을 지적한 뒤 "이번주 협상이 전반적으로 잘돼서 향후 후속 협상의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조순형 前의원-민주당 '보선' 신경전

조씨 내달 성북을 출마 선언 민주당 '공모 통해 후보 결정'



졌다"며 보결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17대 총선 직전 민주당 대표를 지내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조순형 전 의원 보결선거 후보 예비등록과 함께 출마를 선언에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 전 대표의 보결 선거 출마 입장에 대해 '공모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며 불리한 심기를 나타냈다.

조순형 전 대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단 직전인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면서 "50년 역사의 전통의 민주당의 지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

5선의 관록과 함께 '미스터 썬 소리'로 불리웠던 조순형 전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우리당 창당 등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 사령탑을 맡아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강행 처리,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붕괴 직전의 상태로 몰아 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조순형 전 의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출마 여부는 그분의 자유"라며 냉소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Institute (낙내영고시학원) featuring 'Eduview' and 'Eduview' programs. Includes contact info: 062-529-0090.

Advertisement for 2007 Teacher Recruitment Exam (2007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with 'Eduview' materials. Includes contact info: 021-816-1646.

Advertisement for Mu-dong High School Exam Institute (무등고시학원) for police and civil service exams. Includes contact info: 222-4560.

Advertisement for Heat Well electric boiler, highlighting energy efficiency and safety. Includes contact info: 0621-228-4242.

Advertisement for Hangeun Education Institute (한빛교육원) for various exam preparation courses. Includes contact info: 222-6790.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 Education Institute (한빛공무원학원) for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 Includes contact info: 234-0234.